

# The Logic Basic

## 4주차

비교 (주대의방결법)

-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The Logic

-> 4주차는 비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의 1번 논술 문제가 제시문들을 비교 혹은 요약하라는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비교유형에 대한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유형에 대한 연습은 모든 학교의 논술시험이 끝날 때 까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비교유형은 일견 쉬워 보이나 일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제시문들간의 논지차이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등의 일정한 기준으로 각 제시문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4주차

### 1. 비교

#### The Logic

비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 제시문 및 문제에 따른 특별한 기준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논지차이를 드러낸 후 제시문 및 문제에 따른 특별한 기준을 추가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 예제 1번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 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튀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연세대 2014 인문)

\* ‘공감’ (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 1. 일반적 기준(주대의방결범) -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주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상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의도	행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실현하려하는가.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위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 2. 특별한 기준 - ‘공감’, ‘태도’

공감	어떠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는가.
태도	그 공감의 ‘태도’는 무엇인가.

### 3. 일반적 기준과 특별한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 및 분석

<p><b>제시문 (가)</b></p>
<p>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p> <p>검사: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p> <p>증인: 제가 본 피고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사람이었습니다만…….</p> <p>검사: 그렇다면 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까.</p> <p>아이히만: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입니다.</p> <p>검사: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p> <p>아이히만: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p>
<p><b>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b></p>
<p>칼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웠지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여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공감은 ‘타자’라는 공감의 대상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공감의 주체인 아이히만을 기준으로 공감의 대상은 국가인 나치와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각각 나누어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견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든 문제에서 정의한 개념에 의해서든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감’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서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타자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인데, 아이히만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학살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도 나치로 인해 굴욕감, 두려움 등을 느꼈을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훈육과 규율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나치라는 타자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봅시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국가의 명령을 어겼더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치라는 주체가 당시에 처했던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문제에서 제시한 ‘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은 우리와 타자를 분리함으로써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적 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의 목적은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위의 도구적 공감은 국가에 의해 조작된 공감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논리로 이러한 공감은 공감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짓 공감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p>

### 제시문 (나)

포스터 속에 들어 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결눈질을 한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 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마셔 볼 공기(空氣)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 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젓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複寫) 속에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 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자유에 대한 갈망’, ‘생명의 역동성’등 위 시의 주제를 어떤 것으로 파악해도 좋습니다만, 문제가 원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위 시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시문(나)에 나오는 공감의 타자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스터속의 비둘기를 공감의 관점에서 파악해봅시다. 시의 화자는 상상력을 통해 포스터속의 비둘기가 공기 없는 그림이라는 평면적 세상에서 느끼고 있을 답답함을 십분 이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시적화자의 어조와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둘기에 공감하는 바를 다른 이들에게도 시로써 전달하여 이를 읽는 독자들도 그 공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자가 공감을 통해 느낀 상실감과 안타까움 등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감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제시문 (다)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뤼카온은 아킬레우스에게 사로잡힌 뒤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에게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한다.)

“자. 친구여, 그대도 죽을지어다. 왜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가

그대보다 훨씬 훌륭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나 또한 얼마나 잘 생기고 큰지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는 여신이다.

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

누군가가 창이나 또는 시위를 떠난 화살로

나를 맞혀 싸움터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낮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뤼카온은 무릎과 심장이 풀어져

잡았던 창을 놓고 두 팔을 벌리며 주저앉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날카로운 칼을 빼어

목 옆 쇠갈을 내리쳤다.

……[중략]……

검은 피가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다.

###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제시문 (다)는 아킬레우스와 전쟁포로 뤼카온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의 주체는 아킬레우스이며 타자는 뤼카온입니다. ‘타자의 감정 또는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공감의 정의를 토대로 위의 대화를 본다면 일견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대하여 공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뤼카온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 청을 거절하고 뤼카온을 결국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나 적을 죽일 수 있고 자신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대한 상호동의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시문 (가)와 (나)와 비교해보면 재미있게도 제시문(다)는 헤겔의 정반합적 원리에 따른 발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유대인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국가가 조작한 거짓 공감을 토대로 유대인을 타자화시켜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에서 비둘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이 과정에서 느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다)는 이 둘의 정과 반적인 관계를 종합하여 합의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없이 타자를 배제하고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타자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공감만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의 아킬레우스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원리에 대해 공감해줄 것을 뤼카온에게 요구하며 그에 동의를 한 뤼카온과 인간의 실존성에 대한 상호공감을 이루어냈으나 역설적으로 군인의 지위에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감과 관련해 제시문 (다)는 (가)와 (나)의 태도를 모순적으로 종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표로 정리하기

	(가)		(나)	(다)
주체	유대인 학살자 아이히만		시적화자	전쟁영웅 아킬레우스
대상	유대인	나치	포스터 속에 갇힌 비둘기	포로 튀카온
의도	차별과 배제	국가에 대한 충성	답답함을 승화시키기 위해	상대방 설득
방법	유대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동일시	더 높은 차원에서의 공감을 유도
결과	유대인 대학살		카타르시스	전쟁포로 참수
범위	세계사적 문제 야기		개인적 감정 승화	전쟁이라는 공적 업무
공감	비공감	거짓 공감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	더 높은 차원의 공감
태도	타자화	맹목적 복종	감정이입	합리적

#### 5. 답안 작성하기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공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공감능력 부족을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나)는 지나친 공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이러한 (가)와 (나)의 한계를 모순적으로 종합하는 양면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공감능력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이 처한 상황이나 느꼈을 두려움에 대한 공감 없이 국가에 의해 조작된 거짓 공감에 근거하여 그들을 타자화시켜 무차별적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의 부재로 무차별적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 (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화자는 포스터 속에 갇혀 날지 못하는 비둘기의 상황과 비둘기가 느낄 답답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이 과정에 독자들도 참여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가 느낀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치유되지 않는다. 일 방향적인 공감으로만 일관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튀카온에게 군인으로서의 숙명과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동의를 구하며 그에 공감한 튀카온을 죽인다. 이러한 태도는 타자에 대한 공감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가) 일면적 태도와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만으로 일관하는 (나)의 일면적 태도를 양면적, 모순적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가)에는 없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나)처럼 일 방향적인 공감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 내지 공감을 이끌어내어 폭력성을 드러내어 문제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예제 2번**  
 <제시문 1>~<제시문 4>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성균관대 2014 인문)

**1. 일반적 기준(주대의방결범) -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주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상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의도	행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실현하려하는가.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위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2. 특별한 기준 - ‘공감’, ‘태도’**

매체	‘매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향력	매체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일반적 기준과 특별한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 및 분석**

**<제시문 1>**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본인이 속해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프랑스 숲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이 문명사회의 언어 표현이나 관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나 몸짓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소셜 미디어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표현에도 서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웹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얼굴을 보고 수행했던 전통적인 면 대 면 의사소통에서와는 다르게 기계적 메커니즘에 어울리는 언어적 표현이 발생한다. 또한 언어적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했다 할지라도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미지나 각종 다양한 이모티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타인의 공감을 얻

을 수 있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심리학자들은 인지론적 관점에서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문화에 더 잘 적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시기가 젊을수록, 즉 어려서부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일수록,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 방식을 더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언어적 특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표현법 습득이나 적응 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소통 능력도 탁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 방식이 굳어져 버린 기성세대보다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어릴 적부터 소셜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 사이에서 고유한 언어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프랑스 숲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은 야생에서 늑대들과 소통하던 방식으로 인간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소통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위의 늑대소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들은 디지털로써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문화, 즉 매체를 만들어 의사소통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소통수단을 접해보지 않았거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에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2>**

매체의 결정적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매체는 수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일 뿐 수용자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주장은 현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의 대표적 성과인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 이론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 이론은 개인 또는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은 각기 다른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지식과 신념을 갖고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지식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이용자는 매체가 전달하는 특정한 내용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매체의 내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내용을 선별적으로 배제할 것이므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매체의 내용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미 그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지식과 신념을 갖춘 사람일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기존의 지식과 신념을 더욱 강하게 할 수는 있겠다.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이와 같은 미미한 영향력은 매체의 영향력 자체를 결정짓게 된다. 매체는 항상 특정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미미한 영향력은 결국 매체 자체의 도구적 영향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수용자를 기준으로 매체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들의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며 ‘선별적 노출’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지, 매체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시문 3>**

대표적 매체 이론가인 맥루언(H. M. McLuhan)은 “매체가 메시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자체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구어 시대, 문자 시대, 인쇄 시대, 전기 전자 시대 등으로 구분한 그는 각 시대를 주도하는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간의 ‘감각비(sense ratio)’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사회와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은 다르다. 또 전자 매체는 지구촌을 조성하여 전쟁이나 재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하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그는 특히 인쇄 매체와 전기 전자 매체의 등장을 전후해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다.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말하고 듣는 청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보다 감성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쇄술 발명 이후, 인간의 감각비는 읽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시각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쇄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을 선형적이고, 논리적이며, 범주적이게 만듦으로써 모든 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맥루언에 따르면, 매체의 형식과 구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그러한 매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매체 이론가 맥루언의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주장을 가지고서 매체 자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반응도가 틀려지고 그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청각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리 인쇄술의 발명 이후 시각에 의한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며 인간은 이러한 매체의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시문 4>**

매체 수용자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의 산물을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매체가 수용자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매체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매체 수용자는 항상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기분 전환, 인간관계 형성, 개인적 정체성 확인, 환경감시 등과 같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매체에 접촉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체를 이용하게 되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만화를 보고 즐거움을 얻는다든지,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사람이 현실 도피를 위해 오락 영화에 탐닉한다든지,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고를 눈여겨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수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매체라는 도구를 소비하는 행위이다. 결국 매체는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단순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수용자를 수동적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단순히 수용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매체 자체가 갖는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표로 정리하기**

**[표1 -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1			제시문 2	
주체	늑대소년	기성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수용자	
대상	인간	디지털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매체	내용
의도	소통			의사소통 수단	의사소통
방법	자신이 알던 매체를 사용하여 소통하려함		자신들만의 매체를 사용하여 소통	도구로 이용	선별적 수용
결과	소통불가		매체의 의미를 공유하는 이들과의 소통	선별적 강화	
범위	개인적	집단적		집단적	
매체	늑대의 의사소통 수단	아날로그	디지털	도구적	
영향력	매체 그 자체로 인해 소통여부가 결정되므로 절대적			미미	

**[표2 -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3	제시문 4
주체	전달자	수용자
대상	수용자	매체
의도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특정 욕구 충족
방법	감각비가 높은 매체 사용	욕구 충족의 도구로 매체 사용
결과	효율적 의사 전달	욕구의 충족
범위	집단적	개별적
매체	감각비에 따라 발전하는 매체	욕구 충족의 수단
영향력	수용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	도구적 역할에 그칠 뿐

## 5. 답안 작성하기

제시문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매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하며 독자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시문 2는 수용자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매체에 의해 전달되었는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제시문 4는 매체는 개인들이 가지는 특정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능동적 특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선택되는 수동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달리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매체가 소통가능 및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제시문 1은 매체는 매체를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서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그 매체를 공유하지 않는 이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며 매체가 가진 중요성을 역설한다. 제시문 3은 매체에 따라 수용자의 태도가 달라짐을 보이며 내용이 아닌 매체 자체에 의해서도 수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p>혼자서 해결하기</p> <p>남을 돕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 동기가 있다.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에 근거하여 그 동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중앙대 2008 인문)</p>
--

**1. 일반적 기준**


**2. 특별한 기준**


**3. 일반적 기준과 특별한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 및 분석**

<p>(가)</p> <p>수렵 채취 부족에서 보이는, 사냥해 온 고기를 둘러싼 식량 공유 현상은 인류학자들의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왜 애써 잡아 온 고기를 남들과 나눌까? 항상 식량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남이 사냥해 온 고기를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왜 굳이 자기도 사냥을 나갈까? 사냥이란 엄청나게 시간이 소모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사냥의 결과물(그것이 큰 짐승이라면)은 모든 부족 구성원들과 골고루 공유되기 마련이다. 내가 잡아 온 사냥감이라고 해서 내게 더 좋은 부위가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략) 남이 애써 사냥한 결과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냥을 나선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략) 반복-호혜성 가설에 따르면, 이타적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될 것임이 전제되었을 때, ‘상대방이 다음 회에 동일한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일한 방식의 대응이란 다름 아니라 ‘네가 이번에 협조를 안 하면 나도 다음번에 너와 똑같이 협조를 안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p>
--

<p>보면,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호혜성에 기초한 동일한 방식의 대응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면, 훗날을 예상해서라도 이번에 협조할 것이다.</p>
<p><b>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b></p>

<p><b>(나)</b></p>
<p>터를 닦고 주춧돌을 박는 것부터 자귀질, 톱질이며, 네 울가미를 짜서 일으켜 세우고 새를 올리고 윗가지를 얹고 토역을 하는 것까지 전부 회원들의 손으로 하였다. 이엉을 엮을 짚도 농우회에서 연전부터 유념해 두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입에 혀같이 봉죽을 들었거니와, 회원 중의 석돌이는 원채 지위(목수)의 아들인데다가 눈썰미가 있어서 수장은 물론 문짝까지 제 손으로 짜서 달았다. (중략) 그러나 서투른 목수와 토역장이들이 얹어 놓은 집이라 장마를 치르고 나니까 지붕이 새고 벽이 허물어져서 곱일을 하느라고 동혁이도 몇 번이나 코피를 쏟았다. 그랬건만 다 지어놓고 보니 걸눈에 번듯하게 띄지는 않아도 거진 이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영부렁하게나마 헛간으로 쓸 모채까지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무실, 도서실까지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았다. (중략) 동혁이 한마디 하고 나서 등 뒤의 회관을 가리키며, “이만한 집 한 채를 얹어 놓은 것이 결코 자랑할 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지으려고 여러 해를 두고 별러 오다가, 오늘에야 낙성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집은 연재 가락 하나, 짚 한 단까지도 회원들이 가져온 것이요, 목수나 미장이 한 사람도 대지 않고 우리가 이 엄천에 옷통을 벗어붙이고 불개미처럼, 참 정말 불개미처럼 두 달 동안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집 한 채나마 우리 한곡리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은 농우회원 열두 사람의 집이 아니요, 여러분이 유익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어 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곡리의 공청, 즉 공회당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여러분! 이 집이 터지도록 우리의 장래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글 배우는 소리가 그칠 때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집이 꼭차면 우리는 이 집버덤 더 큰 집, 또 그버덤도 더 굉장히 큰 집을 짓겠습니다!” 그 말에 회원들은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한다.</p>
<p><b>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b></p>

(다)
<p>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출척(怵惕)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구해 준다. 그 구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자기의 어린애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 애를 구해줌으로 해서 무슨 이득이 생긴다고 그런 것도 아니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으면서도 구해 주려고 한다. 그것은 그저 자기 마음속에 저절로 움직이는 정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하며 그것을 ‘인지단’(仁之端)이라 하였다. (중략)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만약 ‘저 애를 구해 주면 내게 어떠한 이득이 생기리라.’하는 타산이 먼저 서고 그 이득을 목적으로 구해 준다면 그것은 표면으로는 인(仁)의 행동이지만 이면으로는 이(利)의 행동이니 그것은 불순한 것이다. 순수한 ‘인’의 행동 즉, 순수한 자기 본성의 요구에서 행동할 때는 ‘나’와 ‘남’의 차별이 없어지고 피아의 계선이 타파되어 하나의 생명으로 통하고 만다. 인류가 가지는 동정심이라, 인류애라, 박애라 하는 것은 다 이러한 개체적 자아를 초월하여 전체와 하나가 되려는 생명의 요구에서 발생하는 ‘인’의 정신이다.</p>
<p>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p>

**4. 표로 정리하기**

X	(가)	(나)	(다)


#### 4. 답안 작성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답안  
 남을 돕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 동기가 있다.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에 근거하여 그 동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중앙대 2008 인문)

1. 일반적 기준(주대의방결범) - 주체,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주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상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의도	행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실현하려하는가.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위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2. 특별한 기준 - 일반적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제시문 간 차이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생략 ( '동기' -> 일반적 기준의 '의도' 와 같으므로)

3. 일반적 기준과 특별한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 및 분석

(가)

수렵 채취 부족에서 보이는, 사냥해 온 고기를 둘러싼 식량 공유 현상은 인류학자들의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왜 애써 잡아 온 고기를 남들과 나눌까? 항상 식량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남이 사냥해 온 고기를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왜 굳이 자기도 사냥을 나갈까? 사냥이란 엄청나게 시간이 소모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사냥의 결과물(그것이 큰 짐승이라면)은 모든 부족 구성원들과 골고루 공유되기 마련이다. 내가 잡아 온 사냥감이라고 해서 내게 더 좋은 부위가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략) 남이 애써 사냥한 결과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냥을 나선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략) 반복-호혜성 가설에 따르면, 이타적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될 것임이 전제되었을 때, '상대방이 다음 회에 동일한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일한 방식의 대응이란 다름 아니라 '네가 이번에 협조를 안 하면 나도 다음번에 너와 똑같이 협조를 안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호혜성에 기초한 동일한 방식의 대응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면, 훗날을 예상해서라도 이번에 협조할 것이다.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가)는 수렵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냥 결과물 공유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타적 성향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호혜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협동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

터를 닦고 주춧돌을 박는 것부터 자귀질, 톱질이며, 네 올가미를 짜서 일으켜 세우고 새를 올리고 윗가지를 엮고 토역을 하는 것까지 전부 회원들의 손으로 하였다. 이엉을 엮을 짚도 농우회에서 연전부터 유념해 두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입에 혀같이 봉죽을 들었거니와, 회원 중의 석돌이는 원체 지위(목수)의 아들인데다가 눈썰미가 있어서 수장은 물론 문짜까지 제 손으로 짜서 달았다. (중략) 그러나 서투른 목수와 토역장이들이 엮어 놓은 집이라 장마를 치르고 나니까 지붕이 새고 벽이 허물어져서 곱일을 하느라고 동혁이도 몇 번이나 코피를 쏟았다. 그랬건만 다 지어놓고 보니 겉눈에 번듯하게 띄지는 않아도 거진 이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영부렁하게나마 헛간으로 쓸 모채까지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무실, 도서실까지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았다. (중략) 동혁이 한마디 하고 나서 등 뒤의 회관을 가리키며, “이만한 집 한 채를 엮어 놓은 것이 결코 자랑할 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지으려고 여러 해를 두고 별러 오다가, 오늘에야 낙성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집은 연재 가락 하나, 짚 한 단까지도 회원들이 가져온 것이요, 목수나 미장이 한 사람도 대지 않고 우리가 이 염천에 옷통을 벗어 붙이고 불개미처럼, 참 정말 불개미처럼 두 달 동안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집 한 채나마 우리 한곡리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은 농우회원 열두 사람의 집이 아니요, 여러분이 유익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어 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곡리의 공청, 즉 공회당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여러분! 이 집이 터지도록 우리의 장래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글 배우는 소리가 그칠 때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집이 꼭 차면 우리는 이 집버덤 더 큰 집, 또 그 버덤도 더 굉장하 큰 집을 짓겠습니다!” 그 말에 회원들은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한다.

**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료를 공급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글을 배울 수 있는 공회당으로서 사용하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면도 있지만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출척(怵惕)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구해 준다. 그 구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자기의 어린애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 애를 구해줌으로 해서 무슨 이득이 생긴다고 그런 것도 아니다.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으면서도 구해 주려고 한다. 그것은 그저 자기 마음속에 저절로 움직이는 정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하며 그것을 ‘인지단’(仁之端)이라 하였다. (중략)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만약 ‘저 애를 구해

<p>주면 내게 어떠한 이득이 생기리라.’하는 타산이 먼저 서고 그 이득을 목적으로 구해 준다면 그것은 표면으로는 인(仁)의 행동이지만 이면으로는 이(利)의 행동이니 그것은 불순한 것이다. 순수한 ‘인’의 행동 즉, 순수한 자기 본성의 요구에서 행동할 때는 ‘나’와 ‘남’의 차별이 없어지고 피아의 계선이 타파되어 하나의 생명으로 통하고 만다. 인류가 가지는 동정심이라, 인류애라, 박애라 하는 것은 다 이러한 개체적 자아를 초월하여 전체와 하나가 되려는 생명의 요구에서 발생하는 ‘인’의 정신이다.</p>
<p><b>기준에 따른 제시문 독해 및 분석</b></p>
<p>인간이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구해주는 것은 이타적 본성에 따른 ‘인’의 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이 발휘된다면 개체적 자아를 초월하여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p>

#### 4. 표로 정리하기

	(가)		(나)	(다)	
주체	사냥으로 고기를 획득한 사람	사냥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마을 사람들	인간	
대상	사냥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사냥으로 고기를 획득한 사람	마을 사람들	어린아이	
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협동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가 글공부를 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본성의 요구에서 행동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길까봐
방법	서로의 사냥 결과물을 공유		서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노동력을 합쳐 새로운 집을 세움	어린아이를 구함	
결과	상호 이익		사회적, 집단적 이익	‘인’의 정신 발현	
범위	개인적		사회적	인류적	

## 5. 답안 작성하기

(다)는 개인이 이타적 동기에 의해 남을 돕는다고 보지만, (가)와 (나)는 이기적 동기에 의해 남을 돕는다고 보는데 차이가 있다.

(다)는 인간이 타인을 돕는 것은 이타적 본능 때문이라고 본다.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도우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다움인 ‘인(仁)’이 발휘되어 너와 나의 구분을 없앤다면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가)는 사냥 결과물을 나누는 것이 다음번에 다른 이의 사냥 결과물을 먹기 위함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의 사람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글공부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협동을 한다.

그러나 (가)는 개인적 범위에 한정하여 다른 사람과 사냥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만 (나)는 사회적 이익까지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는 단순히 개인이 다른 이의 사냥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호혜적 활동을 한다고 보지만, (나)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글공부를 하여 개화할 수 있기 위하여 협동을 하기 때문이다.